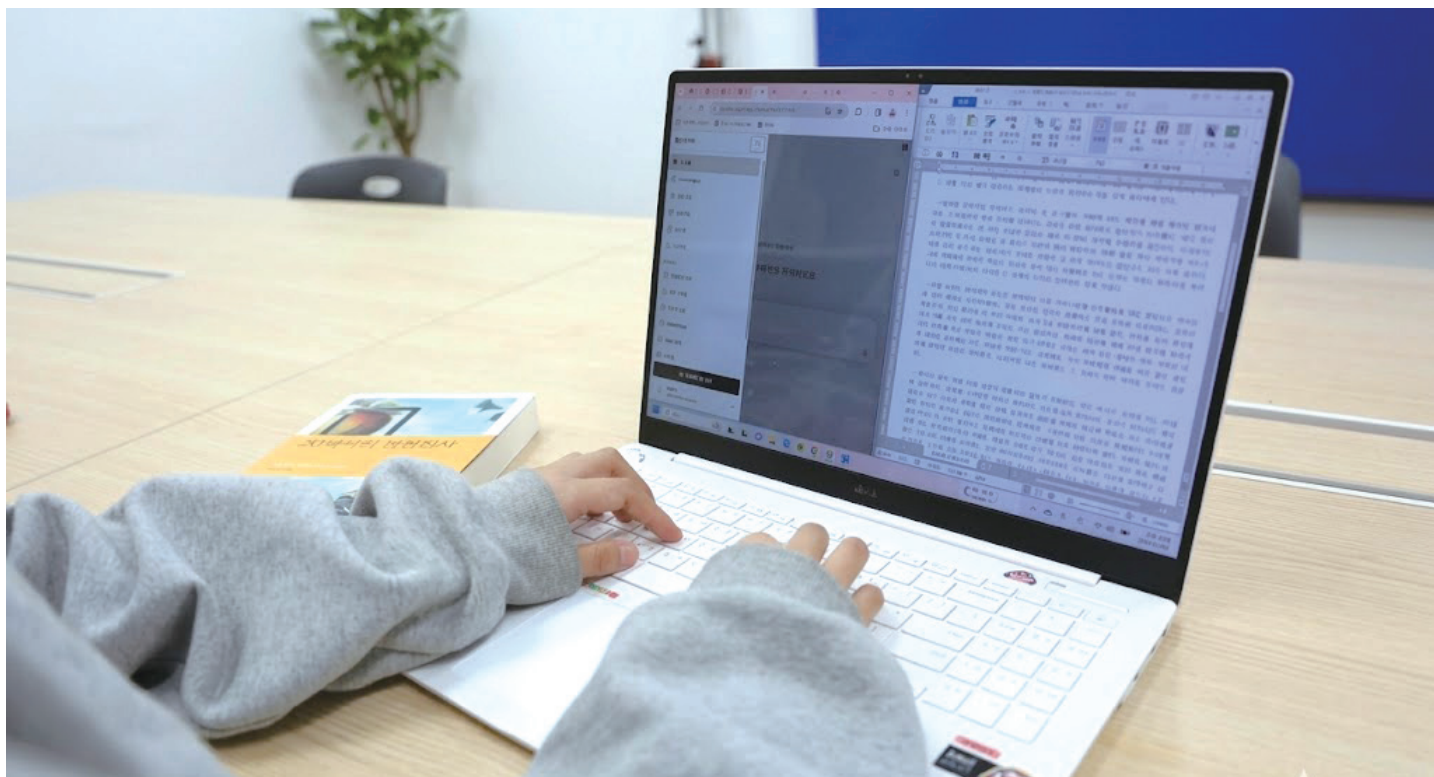


우리학교 승마부 이동화(스포츠지도학 2026) 선수가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승마 종합마술 단체전에서 동메달을 목에 걸며 종합마술 역대 최연소 메달리스트가 됐다. 우리신문은 이 선수를 만나 아시안게임 메달 획득 과정과 향후 목표에 대해 들어봤다.



관리비는 월세에 더해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키우지만, 대학가 원룸은 산정 기준과 사용 내역을 확인하기 어려운 '깜깜이 관리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우리신문은 대학가 원룸의 관리비 실태를 살펴보고 투명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짚어봤다.

대학주보



생성형 AI가 과제 수행 과정에 활용되면서 학생의 결과물만으로 실제 이해도와 학습 과정을 평가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사진=서라수 기자)

AI가 만든 결과물, 학생 실력은 어디에

이서현 기자 is4203850@khu.ac.kr

AI가 들어온 교실

① 총론

생성형 AI는 대학의 과제와 시험, 수업 방식을 바꾸고 있다. 학생이 결과물을 만드는 과정이 달라지자 이를 평가하는 방법도 변하고 있다. 수업 안에서 질문하고 공부하는 방식도 달라졌다. 우리신문은 기획 연재 <AI가 들어온 교실>을 통해 ① 글쓰기·논증 ② 계산·코딩·문제 해결 ③ 예술·창작 ④ 실험·현장에서 AI가 바꾼 모습을 살펴본다. 아울러 AI를 수업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사례와 학내 가이드라인, 교수·학생의 대응을 함께 살펴며 AI 시대 대학 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심층적으로 짚는다.

과제에 들어온 AI 결과물과 이해 사이 간극

생성형 AI는 대학생의 과제 수행 과정 전반에 걸쳐 깊숙히 자리

잡고 있다. 스탠퍼드대 인간중심 인공지능연구소(HAI)가 발간한 『AI 인덱스 2026』에 따르면, 한국을 포함한 15개국 대학생 1만 1,706명을 대상으로 한 국제 조사에 참여한 한국 대학생 가운데 84%는 대학 학업을 지원하기 위해 생성형 AI를 사용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우리신문이 만난 학생들은 개념 이해와 자료 조사, 아이디어 구상, 글쓰기와 편집 등에 AI를 활용했다. 강지안(조리&푸드디자인학 2024) 씨는 자료 검색과 아이디어 정리, 개요 작성에 AI를 활용한다. 강 씨는 “AI를 사용하기 전보다 과제를 어떻게 수행할지 방향성이 확실히 잡힌다”면서도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나 평소 사용하지 않는 너무 정교한 문장 표현이 나오기도 한다”고 말했다.

박해민(응용통번역학 2023) 씨는 평소 글을 다 쓴 뒤 AI를 활용한다. 문장의 흐름과 표현을 점검하고 장단점을 묻는다. AI가 제시한 문장을 그대로 쓰지는 않는다. 박 씨는 “AI가 써준 글은 매끄럽지만 사실

관계가 부정확하거나 지나치게 수려한 단어를 사용할 때가 있다”며 “거의 항상 사실관계를 다시 살펴보고 문장을 고친다”고 말했다.

교수 입장에서선 결과물만으로 학생의 노력과 이해 정도를 구분하기 어려워졌다. AI를 활용하면 일정 수준 이상의 결과물을 빠르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국어국문학과 정기인(현대문학) 교수는 “2024학년도 학생들이 제출했던 4~5개 레포트가 첫 문장이 완전히 똑같았던 경험 때문에 한동안 보고서 과제를 중단했다”며 “이번 학기에는 다시 보고서를 내되 대면 첨삭을 병행한다”고 설명했다.

결과물만으로 부족해진 평가 시험과 평가 방식도 변한다

최근 교수들은 과제와 평가방식에 변화를 주고 있는 상황이다. 사학 민유기(역사학) 교수는 “AI를 활용한 과제들의 완성도가 전반적으로 높아지면서 학생 간 변별이 어려워졌다”며 이에 “과제 배점을 줄이고 지필 중간·기말시험 비중

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시험에서도 AI 사용을 둘러싼 논란이 나타났다. 지난해 10월 연세대에서 약 600명이 듣는 수업 ‘자연어 처리(NLP)와 챗GPT’의 비대면 중간시험 과정에서 AI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다수 적발됐다. 적발된 학생들의 시험 점수는 0점 처리됐다. 같은 기간 서울대는 ‘통계학실험’이라는 교양 과목의 대면 중간시험에서 AI 사용이 적발되어 재시험이 결정됐으며, 고려대 또한 공과대학의 한 전공수업에서 반복 응시 및 AI 부정행위 정황 등이 발견돼 재시험을 결정했다. AI 사용을 잡아내는 문제를 넘어 학생의 실제 역량을 무엇으로 확인할 것인지가 새로운 과제가 된 것이다.

우리학교는 지난 1월 교수학습개발원에서 배포한 ‘AI 활용 교육 가이드라인’을 통해 평가 시에 최종 결과물만 평가하기보다 프롬프트와 아이디어 발전 과정, 결과물 검증과 수정 과정 등 학습 과정을 함께 살펴도록 권고하고 있다.

3면에 계속 →

선택권 넓어진 경영대, 수강난 대책은 어떻게

김재희 기자 jaylove0413@khu.ac.kr

김정우 기자 jwkim012506@khu.ac.kr

도은오 기자 eunohdo@khu.ac.kr

수강신청 때마다 전공수업을 듣지 못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우리신문은 지난 호에서 이런 어려움을 미디어학과 중심으로 살펴봤다. 이번 호에서는 경영대학의 계열제 도입과 다전공 의무이수제도 도입으로 인한 교원·강의실 부족 문제를 다룬다.

전공기초 일부는 자동 배정 나머지 과목은 직접 신청

경영대학은 올해부터 경영학과와 회계·세무학과를 통합한 ‘경영회계 계열’로 신입생을 선발했다. 빅데이터응용학과는 이전과 같이 별도로 선발한다. 경영회계계열 신입생 356명은 1학년 때 두 학과의 전공기초를 이수한 뒤, 2학년에 진학하며 두 학과 중 한 곳을 선택하게 된다.

경영대학 신입생들은 A부터 D까지 네 개 반으로 나뉜다. 경영대학은 각 반에 전공기초 4과목 가운데 2과목을 자동 배정하고 있다. 이번 학기에는 A·B반에 경영학원론과 회계원리, C·D반에 책임경영과 경영통계학이 배정됐다. 학생들은 배정받지 않은 나머지 2과목을 듣기 위해 별도로 수강신청을 해야 한다. 이같이 별도로 학생이 직접 신청해야 하는 전공기초 강좌는 이번 학기 총 19개 강좌 중 12개로, 수강 정원은 총 854명이다.

문제는 여기에 경영대학 다전공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수요도 몰려 정작 경영회계계열 학생의 신청이 어렵단 점이다. 경영대학 전공기초 3과목 경영학원론, 회계원리, 경영통계학이 경영대 내 학과들의 다전공 이수를 위한 선수강 과목이다. 854석 가운데 다전공 예정자도 신청할 수 있다고 명시된 좌석은 465석으로 약 54%다.

2면에 계속 →